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금메달'

역대 한국 최고 올림픽 영웅으로 '김연아' 꼽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한 장면으로 나타났다.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통틀어 역대 한국 최고의 올림픽 영웅으로는 '피겨 여왕' 김연아가 꼽혔다.

온라인 스포츠·연예 매체 스타뉴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69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이하 1·2순위 합계)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한국 경기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을 선택했다.

안세영은 8월 5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사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건 1996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28년 만이다.

뒤이어 임시현(한국체대), 남수현(순천시청), 전훈영(인천시청)이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대기록을 달성한 결승이 17%로 2위, '대회 3관왕' 김우진(정주시청)이 우승한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이 16%로 3위에 각각 올랐다.

안바울(남양주시청)의 불굴의 투지를 앞세워 연장 승부 끝에 목숨을 걸은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과 3회 연속 금메달 금자탑을 쌓은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 신유빈(대한항공)을 내세운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은 각각 13%로 공동 4위에 자리했다.

가장 아쉬웠던 한국 경기로는 신유빈이 히야타 히나(일본)에게 패한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이 3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우상혁(용인시청)이 7위에 그친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승은 29%를 기록했다.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는 김우진이 37%로 1위, 안세영과 '펜싱 2관왕'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각각 30%와 28%로 2, 3위에 올랐다.

역대 올림픽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김연아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김연아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올림픽 영웅으로 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김연아는 2010 밴쿠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한 장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안세영이 지난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사펠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승한 황영조는 33%를 얻으며 2위, 2008 베이징 올림픽 역대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은 17%로 3위다. 한편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서울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찬성, 32%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투자와 비중에 관한 설문에서는 33%가 '늘려야 한다', 48%가 '지금 수준 유지', 19%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남자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에는 71%가 찬성했고, 29%가 반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다. /뉴시스

손흥민, 토트넘·리그로부터 '찬사'

2025년 8월 28일 토트넘 입단... 구단 등서 재조명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이 구단과 리그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에릭센(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델레 알리(현 에버턴), 해리 케인(현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지난 28일(한국시각)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5년 8월 28일, 9년 전 쏘니(Sony, 손흥민 애칭)와 계약했다"며 입단 당시 옛된 손흥민을 조명했다.

이어 2015~2016시즌부터 2024~2025시즌까지 손흥민의 프로필 사진 10장을 공유했다. 리그 차원에서 손흥민의 토트넘 입단은 뜻깊은 일이었다.

EPL은 29일 사무국 SNS를 통해 "토트넘 손흥민의 9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라며 각 시즌 손흥민의 득점 세리머니 사진 9장을 게시했다.

지난 2015년 손흥민은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하며 역대 13번째 EPL 코리아 리거가 됐다.

데뷔 시즌은 새로 무대 적응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를 증명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호흡하며 토트넘 핵심 선수로 맹활약했다.

세 선수가 차례로 떠난 뒤에도 손흥민은 곳곳이 토트넘을 지켰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 주장으로 거듭나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

토트넘 소속으로 현재까지 기록은 통산 410경기 164골 84도움이다.

10년 차에 접어든 손흥민은 우승 트로피만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 23일 영국 매체 'BBC'와 인터뷰 당시 그는 "나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토트넘에 왔다"며 "팀으로도 개인으로도 가능한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토트넘은 내달 1일 세인트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3라운드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뉴시스

'영혼의 파트너', 탁구 男복식 8강행

2024 파리 패럴림픽... 김영건-김정길, 16강서 3-0 승리

'영혼의 파트너' 김영건(40)-김정길(38·이상 광주광역시청)이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남자복식(MD8)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영건-김정길 조는 29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아레나 파리 수드4에서 열린 대회 탁구 남자복식 16강에서 루이스 플로레스-막시밀리아노 로드리게스(칠레) 조를 게임 스코어 3-0(11-7 16-14 11-5)으로 물리쳤다.

김영건은 탁구 국가대표 '너쫓대감' 이자 남자 대표팀 주장이다. 2004 아테네 대회에서 단식과 단체전 금메달을 따고, 2012 런던 대회에서는 단식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 리우 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뒤 2020 도쿄 대회에서 단식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일궜다.

대회를 앞두고 어깨 부상이 있었지만, 잘 회복한 후 문제 없이 대회에 임하고 있다.

김정길도 오랜 시간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2012 런던 대회 단체전 은메달과 2016 리우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0 도쿄 대회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단식과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해 열린 몬테네그로 오픈 단식과 혼합복식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김영건과 김정길은 소속팀 광주광역시청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다. 결승 진출이 목표인데, 16강부터 순탄하게 끝냈다.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함과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집중력까지 칠레보다 한 수 위였다.

1세트 초반은 5-5로 팽팽하게 붙었다. 이후 잇달아 점수를 쌓으며 단숨에 9-5로 달아났다. 잠시 9-7로 쫓기기는 했으나 상대 범실과 김영건의 강한 공격을 앞세워 11-7로 1세트를 끝냈다.



김영건-김정길 조가 29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아레나 파리 수드4에서 열린 대회 탁구 남자복식 16강에서 승리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세트에서는 7-7로 맞선 뒤 혼들리면서 7-10까지 밀렸다. 1점만 더 주면 세트가 끝나는 상황이었으나 침착한 리시브에 이은 김영건의 빠른 공격이 들어가며 순식간에 10-10으로 붙었다.

이후 14-14까지 이어진 듀스 상황에서

서 상대 강한 드라이브를 김영건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치며 점수를 쌓았고, 16-14로 2세트도 땀겼다.

3세트도 문제는 없었다. 초반에는 비공격 치열했으나 순식간에 10-5를 만들었다. 이어 상대 범실이 나오면서 11점째를 기록, 승리를 품었다. /뉴시스

"모든 체육예산 대한체육회가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체부, 체육회 거치지 않고 예산 직접 교부하겠다고 결정

내년부터 생활 체육 예산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교부하겠다고 결정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종목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활 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강화를 위해 직접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회에 지원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올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